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발생 100일, 지원결과 보고



지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지만, 수백만의 아동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진으로 인한 충격적인 경험들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거나 여진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영양실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지진 피해로 인해 집을 떠나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지진에 대한 공포와 빈곤으로 영양실조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현지 파트너 기관  
Physicians Across Continents의 위다드(Widad)

3월에 발생한 폭풍과 홍수로 인해 임시 거주지에서 지내던 이들은 이미 가족, 이웃, 친구, 집, 학교 등 일상의 많은 것들을 잃은 후 또 한 번 큰 피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지진으로 인해 집, 수도시설, 병원 및 의료 센터가 피해를 입으면서 안전한 식수, 화장실 또는 위생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워졌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큰 질병의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으며, 특히 시리아에서는 콜레라와 홍역이 어린이들의 생명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여전히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으며, 이들은 폭력, 학대, 착취, 인신매매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권을 보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과 같은 일상을 계속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을 제외한 여전히 많은 학교들은 복구되지 못한 채로 있으며 수천 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Khalil Ashawi/ Save the Children

# 세이브더칠드런의 긴급구호 활동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 덕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긴급구호 활동을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튀르키예에서 2012년부터, 시리아에서 2013년부터 오랫동안 활동해 오면서 쌓은 경험과, 현지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전문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들을 배포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 숫자로 보는 지원 내역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지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183,359명의 아동**을 포함하여 **366,182명**을 지원했습니다\*

\* 2023년 4월 25일 기준

1,314명

교육 지원을 받는 아동 수



1,184명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수



186,591명

현금 및 바우처를 포함한 식량 및 생계 지원을 받은 사람 수



101,230명

임시 거주지 및 필수 물품을 지원받은 사람 수



63,680명

식수 및 위생 지원을 받은 사람 수



9,160명

영양식 지원을 받은 사람 수



4,207명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보호를 제공받은 사람 수



# 튀르키예 주요 활동



## 지원 목표

(2023년 2월 - 2024년 4월)

**아동 190,000명 포함**  
**총 500,000명**



## 지원 인원

(2023년 4월 25일 기준)

**아동 73,865명 포함**  
**총 129,842명**

## 세이브더칠드런 주요 활동

- 집을 잃은 가족을 위한 임시 거주지, 매트리스, 담요, 침대보 제공
- 곡물, 수프, 밀가루, 파스타, 오일, 올리브, 토마토 소스, 설탕, 소금, 향신료, 차, 커피 등 식료품 키트 제공
- 안전한 식수와 화장실 등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 위생용품 및 존엄성 키트 제공, 임시 거주지에서 빨래를 할 수 있도록 세탁기 및 세제 제공
- 장작, 석탄, 난방기, 겨울 부츠, 우비, 아동복, 신발 등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한용품 제공
-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며 아이처럼 지낼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 활동 진행
-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 1,215명의 학생이 다니던 학교 등 파손된 건물을 복구하고, 학용품, 책, 화이트보드, 운동기구, 책가방 등 물품 지원
- 가족과 떨어진 아동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현지 당국과 협력하여 지원체계 구축

# 시리아 주요 활동



## 지원 목표

(2023년 2월 - 2023년 12월)

아동 550,000명 포함  
총 1,100,000명



## 지원 인원

(2023년 4월 25일 기준)

아동 109,494명 포함  
총 236,340명

## 세이브더칠드런 주요 활동

-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울 수 있는 장비 임대
- 보건 시설, 빵집, 대피소 및 피해 가정 대상 연료 지원
- 아동들이 놀이와 학습을 통해 다시 아이처럼 지낼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제공
-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임시 학습 공간 제공, 학습 용품 배포, 손상된 교육 시설 복구, 교사 및 교직원 모집 및 교육 지원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 사례 관리 서비스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 보호 활동이 적절히 대응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주요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진행
- 수색구조팀과 의료 종사자를 위한 따뜻한 식사 제공
- 임시 거주지, 담요, 주방용품 제공
- 깨끗한 식수, 위생용품, 화장실, 폐기물 관리 지원
- 음식, 의약품, 주요 생필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
- 3개의 이동 진료소를 통한 일차 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 시설에 의료 용품 지원
- 영양실조 위험이 높은 5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실조 검사 및 치료 제공

# 튀르키예·시리아 긴급구호 지원 사례



## 튀르키예 지원 아동

우무트(Umut, 10세) 이야기



임시 거주지 앞에 앉아 있는  
우무트(Umut, 10세)

© John Owens

“세이브더칠드런이 방문하면 재미있게  
놀면서 기분이 점점 좋아지게 돼요.  
세상의 모든 나쁜 일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즐거워지면 좋겠어요.”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 우무트(Umut,  
10세)는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 옆, 임시  
거주용 텐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동과  
가족들이 원래 살던 집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져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더 이상 그들이 살던 집은 손상되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진의 공포를 경험한 이 지역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팀은 지진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지역에 방문하여, 아이들이 충격에 대처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마을에 방문하면, 우무트(Umut)는 다양한  
놀이를 배우고 직원들이 떠난 후에도  
친구들과 배운 놀이를 함께하곤 합니다.

## 시리아 지원 아동

하릴(Halil, 3세)이야기



영양실조 검사를 받고 있는  
하릴(Halil, 3세)

© Khalil Ashawi/ Save the Children

시리아의 하릴(Halil, 3세)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으로 영양실조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지 파트너 기관(Physicians Across Continents (PAC))을 통해 지진 피해 직후  
아동과 가족에게 생존에 필요한 고열량 비스킷, 식료품 키트, 식사와 식수 등을 제공했으며, 특히  
영양실조에 취약한 5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임신 및 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실조 검사를 진행하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 속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콜레라, 홍역,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질병 예방을 위한 인식 증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필요한 것은 여전히 많고 방대합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아동들과 그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리아 현지 파트너 기관 Violet 직원 디야르(Diyar)

##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은 임시 거주지, 비식량 물자, 식량 배급 등 생명을 구하는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친화공간 설치, 아동 상담 및 심리·사회적 지원 등 아동과 가족이 일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이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에서 복구와 재건을 포함하여 긴급구호 활동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진으로 집이 붕괴되어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는 야날(Yanal, 44세)와 그의 가족 에메드(Emad, 10개월)



## 세이브더칠드런 긴급구호 아동기금

세이브더칠드런은 재난, 재해에 대비해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 72시간 내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도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구호아동기금을 사전에 확보합니다.

사전에 확보된 긴급구호 아동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세이브더칠드런과 현지 파트너 기관들은 지진 발생 첫날부터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지진 발생 초기에 생존한 사람들에게 필수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잔해를 제거하여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을 돕는 등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긴급구호아동기금 정기후원을 해주시면, 재난 발생 후 최대한 신속하게 구호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일시후원